

내게 그림이란, 나와 자연 사이 불가시적 힘, 그 가운데 자리한 투명한 사각의 틀이다. 그래서 나의 작품은 중성적이며, 화폭의 그려지지 않은 부분은 저편에 자리한 천체의 허공이다. 본성에 자리한 그 아득함의 대상은 그렇게 다음 캔버스를 준비하게 만든다. 예술이 이처럼 막연하게 시작되는 것은 그것이 본시 손에 잡히지 않는 신비로운 세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팔레트의 물감이 캔버스 위에 칠해지면 그것은 형이상학의 영역에 놓인다. 하얗게 빈 캔버스는 주변과 다른 깊이와 대기감을 소유한다. 비약하자면 그 자체가 빅뱅이며 블랙홀이다. 또한 작품에 놓이는 첫 번째 붓질은 작가의 상념과 사유 끝자락에서 무언가끼리 서로 만나 부딪히며 생성된 일종의 모호함이며, 이 모호함의 구체적 형상이 바로 추상이다. 형이상학의 범주에서 나의 회화는 일종의 '그려낸' 철학일 수도 있다. 태고의 세계관과 존재론에 입각해 사유하며, 여기에 시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허나 자연 불변의 섭리 언저리에서 무언가를 유추할 뿐, 나로서는 그 절대적인 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술관에서 보는 걸작 회화는 동일한 무게의 가르침을 준다. 서양화보다 덜 로고스적이고, 그보다 파토스적이지 않으며 덜 분석적인 수동성 안에서의 관조적 분위기의 동양 수묵화는 나에게 특별한 영감을 준다. 웬지 서양화는 햇빛처럼 능동적이고 직접적인데 반해, 동양화는 달빛같이 수동적이고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하는 것 같다. 나아가 정서적으로 그 언저리 어딘가에 낭만주의의 밝기가 자리한다. 즉, 사물의 본질과 그 정신성을 강조했던 동양화 정신에 가장 이웃하고 있다고 여기는 서양의 미술사조가 바로 낭만주의다. 이러한 관심을 재창조해 지금의 추상성이 나타났다. 캔버스의 단색조 배경은 수묵화의 영향이고, 그 위의 색채, 기하학적 형상은 재해석된 로맨티시즘의 여러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

자연 과학 너머의 직관과 사유로 얻어진 정신성이 철학의 토대였을까. 확신이 없던 이십 대 초반,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는 동양인으로서도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더러 있었다. 오로지 예술로만 가장 높이, 멀리 날 수도 있으리라는 이데아의 세계를 한동안 응시했었는데 모르겠다. 형이상학과 낭만주의를 함께 상기하노라면 프리드리히 니체도 떠오른다. 인식, 존재 그리고 가치의 사유에서 니체의 형이상학적 입장은 미술사의 낭만주의에서 보이는 드라마를 연상케 한다. 그리고 그의 극복과 초월의 문제는 스스로없이 시시포스와 이카루스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 이와 평행해 스튜디오에서의 시간을 빛깔이 있는 고독이라 여기며 관념적 사유와 태도로 캔버스에 임한다. 이 다음, 하나의 완성된 작품은 페인팅에 대한 이해의 한계점에서 끝맺는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스스로 화가로서 정의 내리는 낭만주의 회화란 개인의 감정적 영역에서 감지되는 세상을 보다 직관적이고 주도적으로 직면하면서, 세계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유추하는 관조적 자제가 만드는 하나의 드라마이자, 화면 안에서 전투적으로 무언가를 찾으려는 시각의 드라마다. 이것이 하나의 대기라면, 작품에 내재된 정서는 멜랑콜리아와 노스탤지이다. 이는 비구상의 형상으로 화면에 배치되는데, 그림의 구도이자 커다란 틀은 일정 시점에서 시작되는 '무한의 전망(infinite vista)'이다. 여기에 대자연의 영감을 나의 추상성으로 '숭고미(sublime beauty)'에 다다르게 하려 한다. 마력에 가까운 예술의 신비, 그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대가의 걸작은 의심 없이 회화의 가능성과 의미를 불멸의 것으로 증명해 보이는 듯하다. 때로는 '세계는 회화를 생각하게 하고, 회화는 숙명처럼 그 세계를 열어젖힌다'는 의지, 또 여러 편린이

캔버스에 자리한다. 그리고 나의 감수성 앞에서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가 필연적으로 서로를 은폐시킬 때, 디오니소스적 직관과 아폴론적 직관이 충돌하면서 천둥과 번개가 일고, 이 기운을 머금고 가라앉은 공기의 밀도를 작품의 배경에 두고자 한다. 내 작품의 균형과 조화를 논한다면, 이 두 직관이 몰아치고 난 후의 드라마가 화면에 하나의 상으로 퇴적되기를 감히 기대한다. 최근작은 그간의 관념적 사유의 세계관이며, 캔버스의 절대 평면에서 절대 공간을 열어보려는 시도다.

한편으로 동시대에서 추상회화의 여러 방법론을 본다. 기존 추상의 방향과 가닥은 다음 세대의 작가들에 의해 과도기에 가까운 실험을 거친다. 같은 숲을 걷는 작가로서 그에 대한 견해는 사뭇 우유부단해진다. 적절한 조감도를 그려볼 확신이 없다. 다만, 내가 느낀 자연에 대한 경외감, 아름다움, 슬픔 그리고 텅없음이 소극적으로나마 시대정신과 추상성으로 캔버스에 실리기를 바란다. 나 스스로 자연 본연 혹은 인간의 정신성이라 여기는 장엄함과 영원함을 작품에 어렴풋이나마 찾아 들어가는 시간으로, 한 획 한 획의 당위성을 그려본다.



‘획’의 로맨티시즘

/ 썬 정